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연방대법원, 트럼프의 리자 쿡 연준 이사 해임 거부

[미국 금융]
- CNBC: 내일 미 일자리 공고 주목하며 미 국채 금리 변동 없어
- Bloomberg: AI 폭락 후 기술주 반등에 뉴욕증시 상승

[물류]
- WSJ: 7월초 홀리데이 맞아 서부 해상 운임 급등…5천9백불

[중동 전쟁]
- Politico: 미국과 이란, 양측 공격후 화요일 도하에서 회담 재개 합의

[오일]
- CNBC: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 중단한 가운데 오일가 상승

[글로벌 경제]
- CNBC: 중국 경제, 대미 수출 힘없어 6월에 반등
- CNBC: 중국, 일본에 수출 통제 확대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Bloomberg: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AI에 8천8백억 투자 계획
- TechCrunch: 월가, 마이크론을 제 2의 엔비디아로 주목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Supreme Court Lets Fed’s Lisa Cook Stay in Job for Now
연방대법원, 트럼프의 리자 쿡 연준 이사 해임 거부

-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즉각 해임을 거부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지켰다.
- 대법관 5 대 4 의견으로, 대법원은 쿡 이사가 증명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에 따른 해임 시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..
-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시도 전 쿡 이사에게 통지 및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. 다만,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14년 임기 중인 쿡 이사의 해임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Treasury yields little changed as investors look ahead to key jobs data

내일 미 일자리 공고 주목하며 미 국채 금리 변동 없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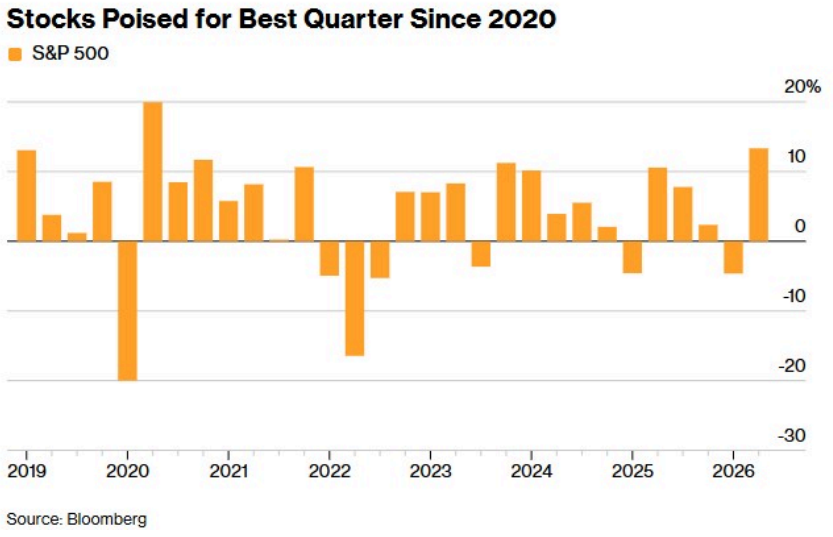
- 투자자들이 내일 화요일 연방정부의 5월 일자리 공고 건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미 국채 금리는 변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.
- 오늘 월요일 오전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거의 변동없이 4.378%에서 거래되고 있고, 반면에 2월물은 1% 증가한 4.104%를 기록하고 있으며 30년 국채금리도 4.862%에서 거래되고 있다.
- 이번주 목요일에는 6월 미 비농가 일자리 숫자도 발표된다.

SYMBOL	COMPANY	YIELD	CHANGE
US10Y	U.S. 10 Year Treasury	4.378%	+0.006
US1M	U.S. 1 Month Treasury	3.681%	+0.005
US1Y	U.S. 1 Year Treasury	3.951%	+0.016
US2Y	U.S. 2 Year Treasury	4.107%	+0.019
US30Y	U.S. 30 Year Treasury	4.86%	-0.005
US3M	U.S. 3 Month Treasury	3.751%	-0.006
US6M	U.S. 6 Month Treasury	3.942%	+0.021

기사

Bloomberg: Tech Stocks Power Wall Street Gains After AI Rout
AI 폭락 후 기술주 반등에 뉴욕증시 상승

- 지난주 인공지능(AI) 분야의 매도세 이후, 투자자들이 업계의 투자 붐이 견고한 기업 실적을 계속 받쳐줄 것으로 보고 매수에 나서면서 기술 기업 중심의 랠리가 증시 반등을 이끌었다.
- S&P 500 지수가 6년 만에 최고의 분기를 기록하기 직전인 상황에서, 지수는 약 0.5%, 나스닥은 1%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- 밸류에이션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초대형 기술주 '매그니피센트 7(M7)'의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.
-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격을 중단하고 유가가 상승 폭을 줄이는 등 중동 긴장이 완화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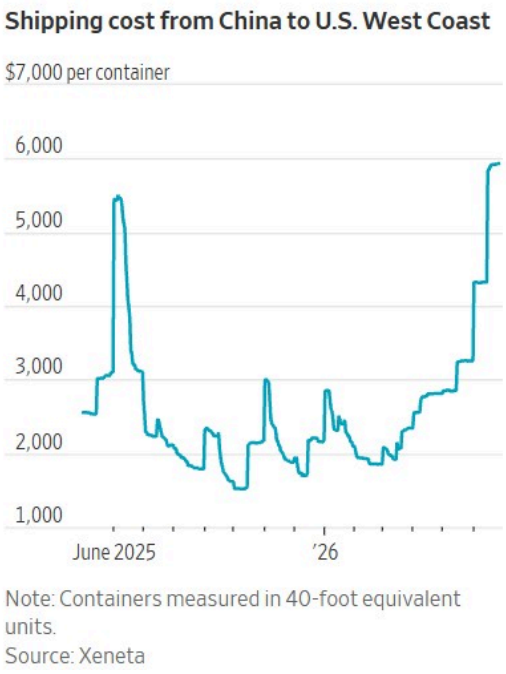


기사

[물류]

WSJ: Retailers Rush In Holiday Imports Early to Avoid Looming Costs
7월초 홀리데이 맞아 서부 해상 운임 급등…5천9백불

- 새로운 관세와 유류 할증료로 컨테이너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.
- 미국 소매업체들이 관세와 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해 수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. 중국에서 미국 서안으로 향하는 40피트 컨테이너의 평균 운임은 5,933달러로 3배나 뛰었다.
- 이로 인해 미국의 5월 무역 적자는 수입 급증의 영향으로 4월보다 27% 늘어난 1,058억 달러를 기록했다.



기사

[중동 전쟁]

Politico: US and Iran agree to resume talks after weekend of strikes
미국과 이란, 양측 공격후 화요일 도하에서 회담 재개 합의

- 지난 주말에 양국이 상호 공격후에 내일 화요일 도하에서 회담을 갖기로 어제 일요일 저녁 합의했다.
- 지난 6월 17일 양국 양해각서 관련 기술적인 회담이 이번주에 재개될 예정이다.
- 미 언론사 Axios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양측이 "당분간 물러서서"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. 이란은 이 합의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.

기사

[오일]

CNBC: Oil prices rise as U.S. and Iran reach deal to halt attacks, U.S. oil above $70 per barrel again
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 중단한 가운데 오일가 상승

- 미국과 이란이 중동 내 최근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.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끝내기 위한 회담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.
- 서부텍사스 중질유는 1.4% 오른 배럴당 70달러23세에서 거래되고 있다. 브렌트유는 1.1% 오른 73달러41센트에서 거래되고 있다.
-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에너지 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다.



기사

[글로벌 경제]

CNBC: China's economy picks up in June on rebounding U.S. exports, analysts say
중국 경제, 대미 수출 힘입어 6월에 반등

- 중국 베이지북 조사에 따르면, 6월 제조업과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회복세를 보였다.
- S&P 글로벌은 미국 수입업자들의 조기 출하로 아시아-미국 간 화물 운임이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.
- 골드만삭스는 재정 지출 가속화와 유가 하락에 힘입어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기사

CNBC: China widens Japan export curbs, targeting drone makers, nuclear firms and defense institutes
중국, 일본에 수출 통제 확대

- 중국이 오늘 월요일에 일본 정부의 국방 연구소 4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다른 수십 개 일본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. 이는 희토류를

포함한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일본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수개월간 이어온 압박 공세를 한층 더 고조시킨 조치다.
- 중국 상무부는 방위연구소를 비롯해 육상·해상·항공 시스템 연구센터 등 20개 기관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했다. 미쓰비시 전기와 미쓰비시 중공업 산하의 여러 사업부도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Samsung, SK to Spend $880 Billion to Drive Korea's AI Lead
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AI에 8천8백억 투자 계획

-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분야에 최소 1,3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.
- 한국은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해 경쟁국들을 멀찌감치 따돌린다는 목표를 세웠다.
- 정부는 용수 및 전력 사업을 포함한 인프라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,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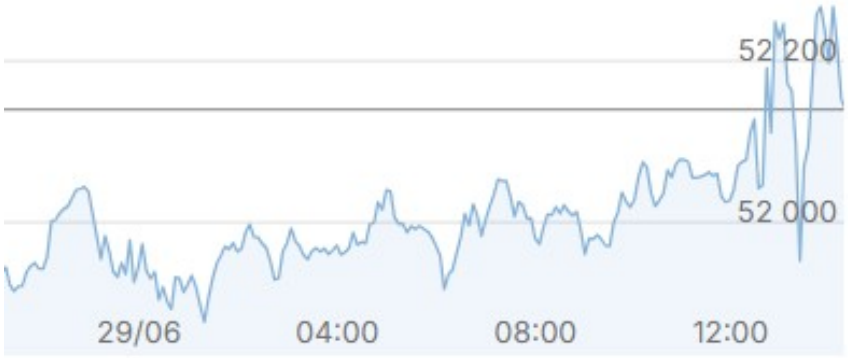
기사

TechCrunch: Why Wall Street thinks US memory maker Micron is the next Nvidia
월가, 마이크론을 제 2의 엔비디아로 주목

- 메모리 칩 제조사 마이크론이 월가의 긍정적인 지원과 주목을 받고 있다. 이 열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AI가 촉발한 메모리 칩 공급 부족이 얼마나 오래갈지에 달려있다.
- 마이크론은 장기적인 입지를 다져 수요 급감이나 공급 과잉에도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.
- 월가도 이를 신뢰하면서,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은 목요일 한때 사상 처음으로 메타와 테슬라를 넘어서기도 했다(금요일에는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다)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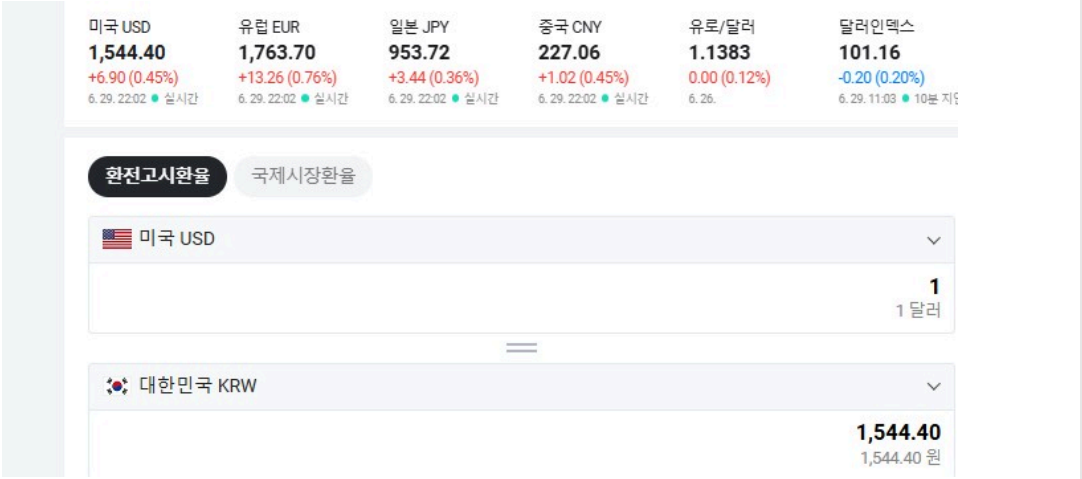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095.40	+229.9	+0.44%
US 500	7,396.40	+43.3	+0.59%
Dow Jones	52,102.71	+226.60	+0.44%
S&P 500	7,395.98	+41.96	+0.57%
Nasdaq	25,554.73	+257.11	+1.02%
S&P 500 VIX	18.33	-0.08	-0.43%
Dollar Index	100.955	-0.172	-0.17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1/32	4.860	-0.006
10-Year Note	4.375	-22/32	4.378	0.007
7-Year Note	4.25	-1/32	4.249	0.011
5-Year Note	4.125	-1/32	4.146	0.013
3-Year Note	4.125	0/32	4.112	0.016
2-Year Note	4.125	0/32	4.113	0.015
1-Year Bill	0	1/32	3.948	0.026
6-Month Bill	0	0/32	3.937	0.016
3-Month Bill	0	0/32	3.749	-0.005
1-Month Bill	0	0/32	3.681	0.016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